

제3절 관학교육의 쇠퇴와 순천의 양사재*

1. 조선후기 관학교육의 쇠퇴와 교육현실

전근대적인 유교주의사회의 교육목적은 대체로 두 가지의 방향이었다. 그 하나가 성인·군자를 목표로 하는 유가의 이상적 도덕주의형이며, 다른 하나는 과거시험을 통하여 관리가 되는 것을 유일의 목적으로 하는 이상적 관료주의형이다.¹⁾ 이와 같은 유교주의적 교육풍토에서는 오직 성현의 언행이 담긴 유가서·성리서만이 최상의 교재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윤리도덕적인 면이 주로 강조됨으로써 마침내 현실에서 유리된 비실용적이고 비생산적인 교육에 그치고 말았다. 더욱이 성리학적 이념으로 지배된 조선사회의 학문경향은 특히 관념적인 면이 심화되고 있었다.

교육의 본질이 합리적인 생활태도와 문화창조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면, 성리학적 교육내용으로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이 어려웠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사실물의 교육 또한 기대할 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대상이어야 할 일반 백성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만 종사하였을 뿐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사실상 교육은 특권지배층의 전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당시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성균관은 그 입학자격이 양반계층에 제한되어 있었고, 또 오직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관리후보자 양성기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기보다는 그들 부조(父祖)의 공을 빌려 출세길을 찾는 데에 급급하였다. 그리하여 이제 성균관은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그 본래의 사명을 잃고 다만 특권층 자제들의 출세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²⁾

이와 같이 최고학부에서부터 교육의 기능이 상실되고 일부 특권층의 출세도장으로 전락되었으니,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실학자들이 제기한 교육의 기회개방론은 그 문제의 소재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특히 학교 교육에서 오는 모순은 갖가지 폐단을 낳았고, 지방교육기관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등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진 향교는 학교라기보다는 지방관의 재원을 염출하는 수단, 혹은 양역의 도피처로 변질되고 말았다. 향교의 고강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연례행사에 그쳐 이미 유명무실하였고, 교사수리·진정(賑政) 등 각종 명목으로 농민의 재물을 수탈함으로써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없어진 채 겨우 봄·가을로 석전을 올리는 데에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³⁾ 학교 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라 할 인격도야와 학문연수는 도외시되고, 다만 봉제를 행하는 역할에 그침으로써 본말의 전도를 가져온 것도 심각한 문제였다.

특히 사학의 성격을 띤 서원의 경우 도덕의 심천이나 학문의 고하는 불문하고 오직 사적 이

* 제3절은 조원래 집필임.

1) 손인수, 『한국교육사상사』, 재동문화사, 1964, 125쪽.

2) 이성무, 「鮮初의 성균관연구」, 『역사학보』 35·36합집, 228쪽.

3) 송찬식, 「조선후기 校院生考」, 『학민대논문집』 인문과학편 11집, 65쪽.

해관계와 당파성에 관련하여 당쟁의 소굴로 변하는 등 각종 작폐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이에 대하여 박제가는 그 폐단의 하나를 들어 “병역 기피자들을 숨겨두고 나라의 법을 어기어 술을 빚기까지 하는 곳”이라 하여 서원의 부패상을 단적으로 지적하였다.⁴⁾ 즉 서원과 향교는 모두 교육기관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학문과 인격의 도장이라기보다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타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18세기의 파행적 교육현실을 우려한 이익은 당시의 학교실정을 다음과 같이 개탄하였다.

학교는 선비를 양성하는 곳이다. 선비를 양성하는 것은 장차 임용하려 함인데 지금 임용되는 자는 과연 학교 교육의 도움을 얻은 것인가. 지금의 현실로 보면 학교는 있어도 도움되는 것을 볼 수 없고, 없어도 또한 해로움을 볼 수 없으니 이런 무익한 데에 어찌 비용을 낭비하겠는가.(이익, 麓憂錄, 학교)

즉 이익은 당시로서는 있으나마나 했던 학교의 무용론을 제기하였다. 그는 학교의 주된 기능이 인재양성에 있다고 보아 학교를 인격과 학문의 연수장으로 인식하였고, 그곳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곧 국가의 기둥이 될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그는 당시의 학교가 학업과 봉제를 겸행하고 있다는 것부터 반대하여 학교란 순수한 학습기능만을 전담해야 한다고 보았다. 조선 후기의 교육현실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교육의 기회가 특권층에 한정되어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학의 선구자 유형원은 당시의 향교에서 보여준 신분차별의 폐단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지금 지방의 향교에서 양반은 동재(東齋)에 거처하고 서민은 서재(西齋)에 거처하게 된다. 그래서 비록 서재가 비어 있어도 양반은 들어가기에 꺼려하고 동재가 비어 있을지라도 서민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심히 잘못된 일이다. 마땅히 한가지로 하여 편의에 따라 어느 곳에든 들어가서 거처하게 해야지 등급을 정하여 차별하게 해서는 안 된다.(유형원, 한계수록, 敎選之制 貢舉事目)

여기에서 유형원은 학교 교육이 양반과 평민의 자제들을 나눠 취급한 학교의 실정을 비판하고, 신분을 초월하여 모든 학생들을 오직 같은 학생으로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또 학교의 좌석서열을 배치하는 데서도 신분적 차등을 엄격히 한 점에 대하여 연령순에 따라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으니, 이를 통해서도 당시의 교육현실이 어떠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무렵 중국은 농·공·상에 종사하는 평민일지라도 누구든지 초등교육은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우리 교육제도의 후진성이 어느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4) 박제가, 『북학의』, 丙午所懷.